



휴지 한장도 달려

실로 현명한 정책이란 폐·휴지 한장의 재활용이라는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어딘가 쓸모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케 함으로써 그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許英子 / 성신여대 교수

일찍부터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신령한 정기를 품고 있어 영산(靈山)으로 일컬음을 받는 지리산 자락의 한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어려서 출생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도회인이 다 되어버렸지만 언제인가 꼭 지리산을 한 번 종주하겠다는 꿈을 지녀왔다. 명산을 등산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나에게서 고향의 산과 정기에 접한다는 개인적 향수가 더하여 있었기에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등산 계획이 늘 계획에만 그쳐 있을수록 산행에의 꿈은 더욱 찬란해지고 가보지 못한 상상의 지리산은 더욱 영묘해져만 갔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지리산 등산을 다녀왔다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곤 하였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리산이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아직 만나지 못한 연인에의 꿈으로 가슴이 부푼 처녀처럼 설레이곤 하였다.

그런데 근년들어 사람들은 대단히 불행한 이야기를 전해 주곤 한다. 지리산은 실로 웅혼 미려한 산이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더럽혀서 쓰레기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리떼의 극성이 시정보다 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순간 나는 이상한 모욕감과 함께 슬픔이 치솟았다. 지리산이 겪어온 수난 혹은 영육은 우리 국토 전체가 겪고 민족 전체가 겪는 역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먼 이야기는 두고라도 6·25라는 전란을 겪으면서 지리산이 치른 수난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비극사가 아니었던가. 또한 생각없는 자들에

의해 울창하던 원시림이 마구 벌목당하던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의 절통하고 노엽던 마음은 오늘까지도 생생하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영육 속에서도 곳곳이 위용을 지켜 온 지리산이 쓰레기 더미로 더럽혀지고 있다니 이런 모멸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거인이 터무니 없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 같아 안타깝고 슬프다.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뜻있는 분들이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삼림을 가꾸곤 하지만 그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손길로도 다 미칠 수 없게 자연 훼손의 피해는 큰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산이 어찌 지리산뿐이겠는가. 또 더럽혀져 있는 곳이 어찌 산만이겠는가.

금수강산이라 자타가 공인해온 우리의 산천이 이제는 더럽고 겁나는 쓰레기 더미에 침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심스럽다.

집안 살림만 하여도 그렇다. 얼마 전까지에도 우리는 「현 것이 있어야 새 것도 있다」는 생각이 깊어서 할머니가 물려주신 병 한개라도, 어머니가 쓰다 주신 수저 하나라도 소중히 아끼며 받아 썼다. 헌 옷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였고 헌 가구 헌 종이 한 장까지 알뜰히 사용하였다. 폐품을 개조하여 응용하였으며 아주 못쓰게 된 것들만 모아서 폐품수집상에게 넘겼다. 그러나 쓰레기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쓰레기만이였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살림에서는 쓰레기의 질과 양이 얼마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남아 못쓰게 된 것이 헌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난 것

이 곧 현 것이며 쓰레기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옛날에는 어떻게 알뜰한가가 살림 솜씨의 비결이었으나 요즘에는 어떻게 현명하게 버리는가가 살림 사는 요령이 될 만큼 변하였다.

옛날처럼 아끼다간 입어 보지도 못한 옷이 현 옷이 되고 써 보지도 못한 기명(器皿)들이 버릴 것이 된다. 더러 폐품을 이용하겠다고 애를 쓰는 주부들이 없지 않지만 자칫하다간 온 집 안이 어수선했지도 정리가 안된다.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버리고 있다. 종이며 비닐이며 빈 병이며 썩지 않는 천들이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더럽히고 있다. 이것을 어떤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내기에는 쓰레기 공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것은 또한 공해일 뿐만 아니라 낭비이기도 하다. 예컨대 폐·휴지의 값은 너무 험하다. 그러면서도 외국에서 사들여 오는 펄프값은 결코 싸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얼마 전부터 빈 맥주병을 회수하는 일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한 가지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들이 지금 폐품으로 버리고 있는 모든 품

목드링 재생이 가능한지 응용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우려사항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상의 갈등이라는 심각한 불행한 정치적 현실상보다 오히려 오채라는 경제적 위기인 것이 어느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경제적 자립과 부강 위에 국가의 자존과 사상의 이상이 꽃 필 수 있고 또한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생활의 개조 없이는 외채 상환의 길이 더덜 형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국산품을 쓰지 말고 검소 절박한 생활을 하며 근검 절약을 몸에 익히자는 소리들이 높다. 또 이를 사회 지도 계층이 솔선 수범해 주기를 희망하며 일부 사치로운 부유층의 자중과 자제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는 마땅하고도 마땅한 일이겠으며 굳이 외채의 상환만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건실한 국민정신으로 함양되고 뿌리내려야 할 의식이요 생활태도인 것이기도 하다.

더우기 수입자유화 시장 개방 등

을 요구하며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우리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들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의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으며 더욱 알뜰한 살림을 꾸려가야 하겠다.

그런 알뜰살림 자세의 한가지로 우리 생활에서 너무 많이 버려지는 폐품의 활용을 적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낭비를 줄이는 한 방편이며 동시에 쓰레기 공해를 막는 일거양득의 일이 되겠기에 말이다. 아마 이런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집집마다 쏟아져 나올 폐품이며 산과 들 구석구석에서 주위를 쓰레기는 상당한 양이 될 것이다.

실로 현명한 정책이란 쓸만한 폐·휴지 한장의 재활용이라는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어딘가 쓸모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케 함으로써 그 역량이 십분 발휘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재능이 함부로 낭비되거나 헛되이 버려져서 폐품화되고 독소를 품는 불만요인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까지 미치는 양식과 양지(良知)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청탁풍조 배격하여

정의사회 구현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화위원회